



회동 마친 3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3당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野 “국회에 공 넘기기” 지연 작전에 불쾌

박근혜 대통령-정세균 의장 국회 회동 엇갈린 반응
與 “수습 실마리 제공”…野 “권한이양 뒤 총리 전권을”

박근혜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8일 회동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국정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불통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우선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 회동에 대해 막혀 있는 정국에 물꼬를 트고 국정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 야당이 국정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이 정 의장을 만나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야당의 요구를 존중하고 부응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야당에서 영수 회답에 응한다면 당장 오후에도 개최할 수 있다”고 진

정성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야당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진행된 이번 회동이 일방통행식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당내 대권주자들과 조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의 추천 총리로 하고, 대통령은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이미) 말했다”며 “대통령이 결단을 하고서 절차를 밟는다면 지켜볼 일”이라고 거리를 뒀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말씀하시지 않고 국회에 공을 던지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 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며 잘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유승민 의원은 “사태 수습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정국 수습의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의 문제인 민주당 전 대표는 “일단 저와 야당이 제안했던 거국 중립내각의 취지와 다르고 민심과도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원로들과의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국회 추천만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조각권과 국정전반을 맡기고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서는 것이 저와 야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의 취지”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완전한 권한위임 약속 이전에 총리를 선임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 국회 방문 관련 입장’에서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을 약속하고 총리가 선임되는 대로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마지막 애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날 오전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 내용을 설명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5분간 국회의장실에서 대화를 나눴으나 별도의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대선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야당은 박 대통령이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총리의 권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입장을 피력, 정 의장은 이를 청와대에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3분만에 끝난 박대통령-정의장 회동

野, 하야 촉구 피켓 시위…퇴장때 새누리 의원 배웅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전격적으로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마친 뒤 단 10여분 만에 끝났다. 국정 최대 위기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너무나 짧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이날 국회 방문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오전 10시28분께 국회 본청에 모습을 드러낸 박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마주해야 했던 장면은 야 3당의 ‘하야 촉구’ 피켓시위였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과 보좌진 수십여명은 대통령 도착 20분 전부터 진을 짜고 대기했다.

청와대에서는 한광옥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부수석이 동행했다. 박 대통령을 마중 나왔던 새누리당 조원진 최고위원과 민경욱·지상욱 의원은 무거운 표정으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다.

정 의장과 회동을 마친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43분께 의사당 퇴장을 위해 다시 로텐더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의정실에 올라간 지 약 15분만이었다. 이례적으로 박 대통령의 퇴장 시 배웅 나온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거취 불투명해진 임종룡·박승주

靑 “국회와 협의”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회 추천 총리 수용을 공식화하며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지명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김 내정자와 함께 지명된 임종룡 경제부총리 및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내정자의 각료 임명 제정권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두 내

정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두 내정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회와 상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변수는 ‘최소실 사태’ 정국수습과는 별도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여론을 감안해 임 경제부총리 내정자 인사 청문회만 원포인트로 개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박 안전처 장관 내정자의 경우 ‘전생 체험’ 저서 및 국판 공연 참석 논란 등이 제기된 만큼 국회와 협의를 거쳐 내정 철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 민심 창구’ 된 국민의당 시국 토론회

송정역·금남로 등 일주일간 순회…하야·탄핵요구 봇물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 김동철)이 지난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매일 광주시내 곳곳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비상시국 시민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성난 민심을 전했다.

8일 국민의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산구 수완지구 롯데아울렛 앞을 시작으로, 이날 광주 송정역 광장에서 긴급 토론회를 이어갔다. 9일에는 동구 금남로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서 진행된다.

8일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시민 150여명이 참여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한 민심을 전달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박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했다.

김모(60·광산구 도산동)씨는 “현 시국을 국정농단으로 정리하면 안 된다. 이는 청와대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다”면서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가혹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부 정모(36·여름동)씨는 “뉴스에서 정확한 논리를 통해 대통령 하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토론회에서 제안된 시민들의 각종 의견을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토론회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2선 퇴진 피켓 시위를 릴레이로 진행중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靑, 박지원에 총리 제안 했었다…朴, 단칼에 거절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밝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지명하기 전에 박 위원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박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 국정경험을 살려 총리직을 잘 수행하실 분”이라면서도 “본인이 ‘그건 내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야가 합의해 추대한다면 누구인들 ‘실권 총리’를 안 하려고 하겠느냐”며 “박 위원장과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이런 분들은 다 잘 해내실 분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차기 총리는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가 없는 사람이 돼야 한다”면서 “지금은 국회와의 교감이 중요한 시점으로 오랜 국회 경험이 있어야 한다. 현역 의원이거나 전직 의원이라도 후배들의 준경을 받는 분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총리 추천 절차에 대해서는 “2박3일간 ‘콘클라베’(외부와 격리된 채 교황을 선출할 때까지 계속하는 비밀회의) 형식으로 여야

가 논의해 합의 추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이 자신을 책임총리로 추대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당내에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그런 게 바로 마타도어다. 이런 것에 놀아나면 안 된다”고 부인했다. ‘청와대에서 총리직을 제안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그런 건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 상 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